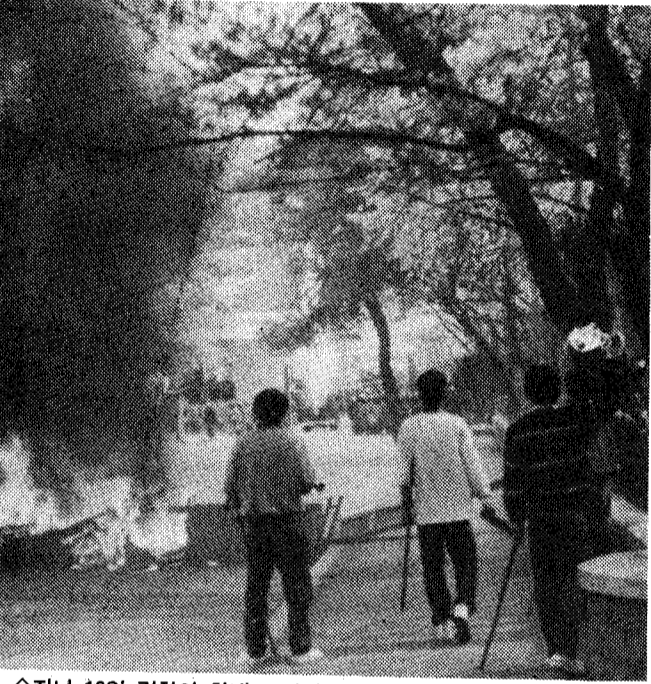


경찰, 학내 무차별 난입

기물파손, 직격최루탄에 부상자 속출

경찰이 학내에 난입,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학내 곳곳의 기물파손과 수업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소금' '탈출기' 등 북한 영화상영과 관련해 경찰이 학내에 진입한 후 또 다시 재현된 경찰 학내 난입은 지난 15, 16일 양일간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상영된 '어머니, 당신의 아들'의 상영지와 필름을 압수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었다. 지난 15일 총학생회가 영화상

영을 강행하자 경찰이 15분만에 학내에 진입, 영화가 중단됐으며 이 상황에서 5백여명의 학생과 경찰이 노천극장 주변과 대운동장에서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이어 들쭉날쭉한 16일도 같은 시간엔 영화상영을 강행하자 40분만에 경찰이 체대앞과 선승문 열혈떡고개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제거하고 진입했다. 이때 영화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학생들이 돌파 화염병으로 경찰을 밀어내고 영화상영을 끝마쳤다.



◇지난 16일 경찰이 학내로 진입하려 하자 학생들이 바리케이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제 4기 서총련 출범식' 민중운동·학생회 탄압에 전면전 선포

'제4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출범식'이 지난 17일 한양대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3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예정보다 2시간 가량 늦게 시작한 서총련출범식은 '성조기와 노태우 허수아비' 화형식중 경찰의 학내 침탈로 중단사태를 빚기도 했으나 이에 맞서 학생들이 돌파 화염

병으로 맞서 1시간 후에 다시 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김종식(한양대 총학생회장) 서총련의장은 출범선언문에서 "서총련 40만 청년화도는 노정권퇴진의 기치를 들고 민중운동탄압과 학생회 탄압을 강고한 노화연대로 저지할 것이며 민중승리를 안겨줄 민주대연합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UN단독가입 영구분단



누군가 당신의 모교를 물어올 때 대학주보가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이제 직장이나 집에서 대학주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희의 역사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진취적인 패기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그곳에는 언제나 '대학주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과속의 여유를 '대학주보'와 함께 하십시오. '대학주보'는 경희인의 생각과理想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종합 학술·시사 주간지입니다.

(85명)을 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협상 결렬시 대처방안에 대해 1백16명의 조합원들이 학교측과 제협상을 한 후 파업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총여 여성학교 개최 오는 29일부터 3일간

수원캠퍼스 총여학생회에서는 오는 29일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외국어교육관 한누리 소극장에서 여성학교를 개최한다.

본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첫날인 29일에는 '여성과 생활', 30일에는 '여성과 참된 삶'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월1일에는 '여성과 정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안병준 동문 당선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한국기자협회(이하 기협)회장에 안병준(신방-67·현 서울신문사 기자)등문이 당선됐다. 지난 3월29일 협회최초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안동문은 전 기협회장 이근성(중앙일보 기자)씨를 10여표 차로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수원, 장학금 지급 내역 발표

작년 비해 1억7천여만원 증액

수원캠퍼스 학생회는 91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중 지급된 장학금 내역을 발표했다. 이번학기 장학대상자 1천7백46명에게 지급된 교내 장학금은 8억3천7백65만6천1백50원이다. 이중 교내 장학금은 7억9천4백1만7천5백25원으로 1천6백83명에게 지급돼 전체 학생중 약21.6%가 혜택을 받았다. 한편 대외장학금은 총63명에게 4천3백63만8천6백25원이 지급돼 전체학생중 0.8%가 수혜를 받았다.

백44명(2억3천9백86만6천원) ▲ 모범C근로장학:3백명(6천만원) ▲과대표 및 과학생장학:1백62명(4천1백63만6천원) ▲우정장학:1명(48만9천원) 등 총 7억9천4백1만7천원이 지급됐다. 또한 외부장학은 한국전기통신

▲총장장학:4명(4백86만2천원) ▲교장장학:70명(8천4백52만원) ▲경회가족장학:69명(6천9백92만4천원) ▲보훈장학:93명(4천8백16만4천원) ▲체육실기장학:1백79명(1억8천6백30만2천원) ▲간부장학:1백26명(4천94만6천원) ▲잘살기 근로장학:35명(1천7백30만5천원) ▲선발및 모범장학:6

공사 장학 외 26개 재단에서 63명에게 총 4천3백63만8천원이 지급됐다. 이는 작년 1학기 1천5백22명에게 6억6천4백75만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해볼때 수혜 인원은 약2백명, 금액 상으로는 약1억7천여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수원 총대의원회 건설 무산 총학과 정치노선 달라 후보사퇴

수원캠퍼스 총대의원회 건설이 지난3일 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총대의원회 건설준비위원회는 3일 전체총회를 갖고 총대의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대의원

장후보들이 사퇴함에 따라 오는 30일 대의원총회를 다시 가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현재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건설이 진행중이며 외국어대, 사회대, 산업대, 공대 대의원

모스크바 대학과 자매결연 노고노브 총장에 대학장 수여도

본교는 소련 모스크바 국립대와 오는 30일 오전11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내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이번 자매교원체결을 위해 소련 노고노브총장등 대표단이 29일 한국에 도착 다음날인 30일 본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자매결연과 함께 거행되는 또 하나의 행사로 모스크바 국립대 노고노브총장에 대한 대

학장수여식이 있다. 양문호(의대·외과)교무처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대학장수여식은 매달수여에 대한 경과보고와 매달수여식, 자매결연 조인식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미국 볼스테이트대학교 수와 학생, 그리고 소련 청년대학 학생들이 각각 5월12일부터 6일 동안, 같은달 3일부터 10일까지 각각 본교를 방문하게 된다. 이들 교수, 학생들은 이 기간동안 판문점과 제3땅굴등을 관람하며 또한 라중일(정경대·정의과)교수로부터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등에 관해 특강을 듣기도 한다.

원회는 건설되었고 자연대는 현재 진행중이다.

한편 총대의원장 후보출마는 오는 29일까지 체육과학대학 지하에 위치한 있는 체육대 대의원회로 접수하면 되며 단대 대의원

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 3인이상의 추천, 대의원 4분의 1이상 추천, 6학기 이상 필한 자이어야 가능하다.

또한 현재 건설된 단대 대의원장은 30일 있을 총대의원장 선거를 위해 오는23일 체대 대의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의를 갖는다.

【해설】 이번 대의원회후보 사퇴의 발단은 대의원회건준위 측에서 불인 대자보를 일부 학생회 간부가 썼는 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동조했다는 대의원회 건준위 주장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3일 있었던 대의원총회는 무산되었으며 오는 30일에 있을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개강한지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의원회가 없음을 따라 총학생회 인준, 예산집행등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총대의원회의 조속한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社 告

詩 文 에 懸 賞 公 모

형식제한없이 내달 11일 마감

본사는 개교 42주년과 창간 36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인들의 문예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작능력의 질적 고양을 위해 '제 2회 대학주보 문예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 ▲공모기간:1991년 5월 11일까지
- ▲공모부문:시(원고량, 형식이 제한없이 3편이상)
- ▲공모자격: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원고제출처:서울 편집실(구내전화 0095), 수원 편집실(구내전화2056)·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 추후발표
- ▲입상과 발표:5월 27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
- ▲입상작 처리

- 1)당선작 1편:상금 25만원과 상패 및 다음학기 장학금 전액 지급
- 2)가작 2편:각 상금 12만원과 상패 다음학기 장학금 30만원 지급
- 3)입선작 3편:대학주보 게재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및 상패

대 학 주 보 사

이제 직장이나 집에서 대학주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희의 역사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진취적인 패기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그곳에는 언제나 '대학주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과속의 여유를 '대학주보'와 함께 하십시오. '대학주보'는 경희인의 생각과理想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종합 학술·시사 주간지입니다.

<대학주보 정기구독신청요령>

출입후에도 '대학주보'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본사에 오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FAX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주소: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 ◇신청전화:(02)961-0094 (02)963-5849
- ◇FAX:(02)963-5849
- ◇정기구독료:1만원(1년 25회 276면 각회 1부기준)
- ◇기 타:정기구독 신청시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고 가능한 한 본사에 마련되어 있는 대학주보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접수시켜 주십시오.

대 학 주 보 사